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12. 7.(수) 16:07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6시 07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8차, 제59차, 제6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2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22-61-225)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2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22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가> 2022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해 [별지1] 기재와 같이 재허가한다. <나> 위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은 [별지2] 기재와 같이 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신청 방송국 현황입니다. 관악, 마포 등 7개 방송국으로 2009년 최초 허가된 방송국이 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5>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안형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11월 14일부터 3일간 운영하였으며, 7개 사업자 대표자로부터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심사평가와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였습니다. <6>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7개 사업자 모두 1,000점 배점 중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 평가되었습니다. <7>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지역 재난정보 제공, 소외계층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방송을 위한 편성 비율, 청취자 의견수렴, 장비 이중화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운영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재허가 조건으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1일 6시간 이상 편성, 보도 편성 금지 등을 공통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권고사항으로는 다양한 재원 확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재방송 비율, 송출계통 이중화 등에 대한 공통 권고의견과 청취자 불만처리 시스템,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비율, 법령교육 등에 대한 개별 권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 전파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7개사 모두 기술심사 결과 적합 의견이 제시되었고, 혼신방지,

무선국 종사자 등의 조건을 부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 검토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기술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50점 이상 평가된 7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허가유효기간은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700점 이상이므로 모두 5년으로 하고,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은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에 따라 1일 6시간 이상 방송실시, 보도 편성 금지 등의 재허가 조건과 5개 공통 권고사항, 3개 개별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필요, 공동체라디오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건의사항은 향후 공동체라디오 정책 추진 시 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의견이 완료되면 12월 중으로 허가증 교부와 재허가 심사결과 등이 공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심사위원장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형환 부위원장

- 이번 공동체라디오방송 재허가심사위원장을 공동체라디오방송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발 빠른 지역 재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아쉬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편성비율 준수와 전원 및 송출장비 이중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번 재허가 방송사업자들에게서는 위원회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잘 이행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설립 취지를 잊지 말고 참여형 미디어로서 지역사회 소통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안형환 부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개 대상 사업자 모두 심사결과 700점 이상으로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을 여유 있게 넘었습니다. 사무처 의견대로 유효기간 5년으로 재허가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내용을 보니 사업자들은 지역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지역소식을 전하고 주민들과 소통창구 역할을 대체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자원 확보 문제, 다양한 청취자 참여 부족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금번 방통위가 부과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는 경영 우수사례 공유, 공동체라디오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방안 추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안형환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과 소식을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이 2022년에는 2억원에서 2023년 4억원으로 증액 요청하였다고 하나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낮은 재정 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동체라디오의 질적 향상과 지역미디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결과에서 위반사항으로 감점을 받은 곳도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공동체라디오가 지역주민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안형환 부위원장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조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6시간 이상 방송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는데 현재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평균적으로는 12시간 이상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 심야시간대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정파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열 몇 시간 하는데 6시간 이상 방송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무의미한 조건 아닙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최초 허가를 할 때 정파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6시간 편성을 조건으로

부과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 20개 방송국 신규 허가에 대한 부분과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최소한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23~202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2022-61-226)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2023~202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2023~202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가> 2023~2024년도 공익채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공익성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사회 복지 분야 3개 채널, 과학·문화 진흥 분야 3개 채널, 교육 및 지역 분야 3개 채널, 총 9개 채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예비채널 중 육아방송과 MBC NET을 공익채널로 추가 선정한다. 분야별 선정채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2023~2024년도 장애인복지채널로 복지TV를 인정하고 권고사항으로 지체장애 이외의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 화면해설 방송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을 부과합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공익채널 15개, 장애인복지채널 1개를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심사위원장으로는 김효재 상임위원장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가> 공익채널입니다.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받은 채널 중 공익성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사회 복지 분야 3개 채널, 과학·문화 진흥 분야 3개 채널, 교육 및 지역 분야 3개 채널 등 총 9개 채널을 선정하고, 선정기준 점수를 초과한 5개 채널을 예비채널로 지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심사대상 채널명과 채널명 평가점수는 다음 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입니다. 한계기업에 처한 공익채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자 규모 및 공적지원 여부에 따른 편차가 큰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 및 지역 분야에 3개 채널이 선정된 EBS로 인해 타 채널의 선정기회가 축소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채널과 법인의 재무구조가 통합되어 있어, 신청채널의 방송사업 분야 세부 재무자료 평가를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나> 장애인복지채널입니다. 심사결과 총점의 70%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을 받은

채널인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입니다. 차후 심사에는 장애인 채널 외에 다른 공익채널에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익채널 관련입니다. 사회 복지 분야 3개 채널, 과학·문화 진흥분야 3개 채널, 교육·지역분야 3개 채널, 총 9개 채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한 5개 예비채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육아방송과 MBC NET 2개 채널을 공익채널로 추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비채널 중 상위 득점을 한 육아방송은 심각한 사회 현안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점과 선정된 3개 채널과 방송분야가 중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및 지역분야 예비채널 중 상위 득점을 한 MBC NET은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방통위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며, 해당분야에 지역방송 선정채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채널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및 화면해설방송 확대 등 권고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 정책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이후 공익채널 선정서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서를 교부하고 공익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운영기간 동안 매 분기별 운영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역시 심사위원장이셨던 김효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2023~2024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는 공익채널에 15개, 장애인복지채널에 1개, 총 16개의 채널이 신청하였습니다. 방송, 법률, 경영, 시청자, 장애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총 3일간 많은 논의를 거쳐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공익채널로서 채널 적합성, 계획 대비 실적, 재무 건전성 등 심사항목을 면밀하게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 보고받은 것과 같이 공익채널은 각 분야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3개 채널을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 1개의 채널은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순위에는 들지 못했으나 선정 기준 점수인 총점의 65%, 심사사항별 4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채널 5개를 예비채널로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예비채널 중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지역방송 활성화 등 사회 현안이나 방통위 정책방안과 밀접하게 연관된 채널인 육아방송과 MBC NET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상임위원님들과 논의해 본 결과, 해당 심사위원회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이었고 이를 반영하여 이와 같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또한 형편이 어려운 공익채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지역분야에서 우수한 제작기반을 갖춘 EBS 3개 채널이 매년 선정되어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타 채널의 선정기회가 축소되니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채널에서도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심사결과와 심사위원회 의견을 잘 고려하여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중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사무처에서 검토하시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시피 사업자 규모 및 공적 지원 여부에 따른 편차가 큰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 및 지역분야 3개 채널이 선정된 EBS로 인해 타 채널의 선정기회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추후에는 '교육 및 지역'이라는 전혀 상관성 없는 두 분야를 하나로 엮어서 EBS가 지속적으로 선정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MBC MET을 뒤늦게 구제는 했지만 9colors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추후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김효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익·장애인복지채널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교육 및 지역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에 동의하고, 보다 더 지역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책추진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먼저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효재 위원님과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익성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익채널들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다만, 사무처(안)에 일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외에 기준 점수를 훨씬 상회하는 채널 중 일부는 우리 위원회 재량을 통해 정책적 배려로 공익채널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재량을 통한 선정 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획일화된 단일점수, 순서를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선정된 공익채널 내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채널을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방송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굳이 제가 첨언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지역문화 정보채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이번 교육 및 지역 공익채널 분야 선정결과를 보면 교육채널만 3개가 선정되고 지역방송은 1개 채널만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그간 강조해 온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에는 결과적으로 역행하는 결론이 도출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2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제도개선입니다. 현재 교육 및 지역 항목에 묶여서 매번 소외받고 탈락하는 지역공익채널을 앞으로는 별도 항목이나 분야로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서 부족한 지역문화 정보채널을 이번에 MBC NET뿐만 아니라 추가로 하나를 더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공익채널 중 부족한 분야를 채울 수 있고,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MBC NET과 9colors는 같은 성격의 지역채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지금 9colors 같은 경우 지역의 개별적인 지역방송사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어도 그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MBC NET는 네트워크 관계이기 때문에 지역MBC가 서울MBC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colors가 지역의 좋은 콘텐츠를 전 국민이 볼 수 있고, 또 어느 지역의 뉴스 소식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또는 고향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9colors를 포함시켜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사무처 안전에 수정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세 분이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는데 부위원장님께서 9colors를 추가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수정의결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예, 저도 이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저는 나중에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김창룡 위원님 의견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또한 나머지 채널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변별력 또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서 지역분야의 방송을 추구하는 문제는 제도개선 후에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사무처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9colors 같은 경우 실제로 그동안 공익채널에 선정되지 않았어도 공익채널에 선정되면 그중의 하나를 머스트캐리(Must carry)한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대다수 플랫폼을 통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리의 선정 공인증 엠블램(emblem)을 갖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상 방송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개별 플랫폼과 해당 사업자와 송출계약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계약을 통해서...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실제 대다수의 플랫폼에서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논의해서 결정했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 기준을 바꾼다면 다른 채널들의 이의제기도 가능하고, 이것이 SO들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나 김창룡 위원님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기준을 바꾸는 것은 심사위원장 입장에서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차후에 EBS와 지역을 갈라놓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구제하고, 현실적으로 9colors도 상당수의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복돋우는 제도와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결국 의견이 정확하게 갈렸는데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 안형환 부위원장님이나 김창룡 위원님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맡고 계시고, 또 지역 방송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를 말씀하신 심사위원장이셨던 김효재 위원님의 의견도 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익채널로 선정될 경우

에는 그중 분야별로 하나씩은 반드시 송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EBS 관련 채널들이나 MBC NET, 9colors 같은 경우에는 채널 자체에 파워가 있어서 대부분 IPTV나 케이블이든 플랫폼에서 현실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두 분의 의견을 고려해서 기준을 바꾸되, 오늘 선정에 있어서는 처음에 세웠던 원칙과 기준,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과 김창룡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위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상당히 할 말은 많습시다만 특히 심사를 맡아주신 김효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따르겠습니다. 다만, 덧붙여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에는 제가 제도개선을 제안한 것처럼 분리해서 지역방송을 활성화하려는 우리 위원회의 의지가 표출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YCN유림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종교방송이지 않습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유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PP가 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종교분야는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공익채널 분야에 종교분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방송법 시행령에 플랫폼들은 종교방송을 3개 이상 의무 송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것은 이것과 다른 별도의 내용이지요?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22년도 2차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2022년도 2차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이유입니다. 플로팅광고 관련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경과입니다. 금년 1월에 국감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위한 ‘플로팅광고 위반 사항 조치방안’을 상임위원 간담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회에서 동일 사업자를 대상으로 3번 반복 모니터링 후 전체 사업자를 일괄 행정지도하고 이행점검하기까지의 기간이 과다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1회 위반하면 행정지도와 교육을 강화해서 이용자 불편을 즉시 시정한다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7월에 2022년도 1차 점검결과 및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 조치기준(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 대상은 방문자수 상위 69개사와 기존 시정조치를 받았던 30개사 등 총 99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자에게서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1>을 보시면 위반 사업자는 머니그라운드, 미디어제주, 인천투데이, 더팩트, 서울경제, 인벤, 코리아헤럴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표 <참고 3> 주요 위반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광고이고, 두 번째 삭제 표시를 눌러 삭제를 시도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는 광고, 세 번째 삭제 표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광고에 해당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방안입니다. 지난 7월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 조치기준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게 행정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자 불편을 즉시 시정하고 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조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 추가 검토사항입니다. 이번 위반 사업자 대다수는 광고대행사가 설문을 위해서 만든 광고 틀 안에 있는 X 표시를 사업자가 변경할 수 없어서 법령준수 의지가

있음에도 시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삭제 가능하도록 사업자가 조치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서 시행하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안내서에 박스 붉은 색 부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표> 하단 오른쪽에 붉은 색 삭제 표시처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하게 표시하고 사업자가 조치할 수 있는 위치에 삭제 조치를 하면 삭제 제한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적시 조치를 위해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 모니터링 점검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위반사업자에 즉시 행정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드렸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번 조사가 지난 4월 1차 조사 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4월에는 20개였는데 이번에는 7개밖에 안 됩니다. 다행입니다. 다만, 금번 7개 사업자 중 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위반을 저지른 사업자가 4개가 됩니다. 더팩트, 서울경제 등 해당 사업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3회 위반 시 정식 사실조사 후 법령에 따라 제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플로팅 광고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발 속에 있는 모래 같아서 아주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을 굉장히 짜증나게 하고 잘못 얹혀 들어가면 지우려고 하다가 그 광고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잘하고 개선되도록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전체적으로 김효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99개 조사했는데 7개로 대폭 줄어든 것은 그동안 행정조치가 나름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2022년 7월 위원회의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점검 결과 보고 때 위반 사업자가 20개였는데 2차 점검에서 7개 사업자로 감소한 점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사실은 이용자가 이용할 때의 체감은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등 플로팅 광고 삭제 제한 위반 사업자는 물론 광고회사가 만든 광고 삭제 표시를 변경할 수 없어서 법령 준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시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해당 사업자의 기사에 붙는 광고임을 고려하면 법령 준수와 자정노력에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무처는 위반 사업자에게 행정지도, 교육, 자정노력 유도 등 국민 불편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점검하시느라 사무처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위반 사업자들이 줄어들었고 줄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3회 반복 모니터링 후 행정처분을 하던 것에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1회 위반 후 즉시 행정지도, 교육안내를 강화하기로 제도를 변경한 것은 이용자 불편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의미는 있으나, 이러한 제도의 변경들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시 행정조치를 통해서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역무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원안접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나>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사유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ESG 경영 노력에 대한 사항을 방송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내용으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 5월 새정부 국정과제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방송평가에 ESG 성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8월과 9월 방송평가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검토가 있었으며, 10월과 11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1월 제5차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3> 주요 내용입니다. <가> 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방송평가 제도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관련 사항이 평가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환경 경영 및 ESG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은 'ESG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항목을 신설하고 가점제도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방송사업자는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종편PP가 되겠습니다. 평가점수는 운영영역에 'ESG 관련 이사회 보고', '환경경영 노력' 등 합계 10점을 가점으로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평가기준은 환경경영 목표 수립 여부,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친환경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 편성 여부, ESG 관련 이사회 보고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 방송사와 관련하여 방송평가에 ESG 경영 평가 항목을 도입하는 취지와 제도 개선 효과를 고려할 때 KBS·EBS에 한정하기보다는 중앙지상파TV 및 종편PP까지 적용함이 적절하다는 것이 다수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방식과 관련하여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정의, 계량적인 기준이 준비되지 않았으며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점제도가 적절하다는 것이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개정규칙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가점제 방식으로써 평가 받는 방송사의 인센티브로 적용될 것이므로 '23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라> 평가항목 적용 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에 평가하는 '23년도 방송실적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4>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 및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12월 4주차에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위원회에 의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별지는 방송평가 전체 영역별 점수 배점 개정(안)이며 <붙임>으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가점이 되면 전체 제로점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점이 별도 점수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방송평가의 만점이 몇 점이지요?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지상파는 700점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가점을 한다는 것은 700점에 더 얹어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700점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700점에 10점이 가점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700점 내부에서 조정된다는 것입니까?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아닙니다. 700점과 별도로 10점 가점을 두고 획득한 만큼 합산되는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니까 다 만점을 받으면 710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니까 제로섬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더 얻으면 좋고 더 얻지 못해도 손해는 없다는 것이지요?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요즘 이른바 환경과 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가 전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송평가에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계의 의견수렴 자리에 제가 갔을 때 이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논의, 또 하나는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논의가 일관되게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지는 않았습시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이것이 제로섬이 아니라면 저희가 시행해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를 서서히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인데 ESG라는 것이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용어인데 이것을 꼭 영어로 써야 하나 하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사지'라고 하더라도 약자이긴 마찬가지이고 E라는 것이 환경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약속입니다. ESG라고 하면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외래어를 도입해서 국가 공문서에 까지 이것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어서 ESG라는 하나의 용어로 이것이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겠지만 이런 외래어 도입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방송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김효재 위원님 말씀처럼 ESG 이런 용어를 그대로 써야 하느냐 마느냐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이 여러 기업에서 일반화해서 쓰고 있고, 또 타 부처에서도 이렇게 ESG로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매년 방송평가에 새로운 평가요인들이 생기고 있어서 평가위원들도 곤혹스러워하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중요성이나 또 각 기업,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반영하되, 어디까지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반영할 것이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해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2023년도의 실적을 2024년도에 평가하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서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점제도로 1년간 해보고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에 다시 하자, 그리고 그것도 10점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미한 점수이긴 하지만 또 민감한 점수라서 가점제도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방송평가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자칫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도 올해 새롭게 요구가 되어 왔는데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저도 이것이 점수로 환산시켜서 될 대목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친환경, 책임 경영 그다음에 구조개선 이것이 공적책임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가점을 매긴다고 하니 원안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서류, 흐름 이런 것에 편승한 편성 아닌가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50분 폐회 】